

# 광주시, 140억 투입 영산강 인공습지 만든다

내년 국비 5억 확보…실시설계 등 착수  
2028년까지 생태공간 확대·관광 명소화

광주시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해 용도교와 산동교 인근 약 6만5천570㎡에 인공습지 조성 사업을 착수한다.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수질 정화 기능과 자연친화적 생태 공간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시민이 찾는 생태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현재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인공습지 조성은 영산강의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고 수변 여가·관광·문화 공간을 확충하는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영산강 수질 개선과 수변 중심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영산강 물순환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산강 물순환 체계 구축사업’은 오는 2030년 까지 총사업비 1천400억원을 투입해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까지 약 11km 구간의 수질을 기준 3~4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극심한 가뭄 때 강물을



광주시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비 14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위한 인공습지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 제공〉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하천수와 하수처리수 일부를 활용해 하루 10만t 규모의 정화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화된 물은 평상시 하천유지용수로 공급해 수생태계 회복과 친수 기반을 마련하고 가뭄 때는 대체 식수원으로 활용돼 다목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는 최근 반복되는 이상기후와 강수량 감소에 대응한 광주시의 전략적 물관리 대책이다.

이 사업은 국정과제인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와 맞물리면서 국비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영산강 현지조사와 수질 변화 예측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다져왔다.

특히 환경부가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지원하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에 참여, 국정과제와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 3월 공모사업에 맞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선정될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속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영산강은 국가 하천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다”며 “지역 주요 사업과 국정과제의 연계를 통해 물순환 촉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고 인공습지 조성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 영산강을 광주의 대표적 명소로 수변공간이자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市, 도로 확장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 33억 확보

광주시는 17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폐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2001년부터 해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 33억원은 남구 임정마을-

포충사 간 도로 확장 공사(6억원), 북구 녹색이음 누리길 조성 사업(4억원), 동구 선교저수지 복합호수공원 조성사업(20억원)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도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행·여가 공간을 확충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을 신속 추진해 개발제한구역 내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

하고 주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종 규제로 생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금화 도시공간국장은 “국비 확보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 道,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맞춤형 지원 모색

전남도는 지난 16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 회의를 열어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전남도의원을 비롯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 여수시니

어클럽 관장, 복지 분야 전문가, 대학 교수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전남은 노인 인구 비율 28.2%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빙곤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2026년 노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5천900

여명 늘어난 7만8천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함께 수익 창출이 가능한 공동체사업단 확대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위원들은 노인 빙곤 문제 대응,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강화, 참여자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등 현장 중심의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양시원 기자〉

한국학호남진흥원,  
누적 수집자료 10만점 달성!

호남인의 삶과 기록,  
10만 점의 가치로 이어갑니다.

소중한 문화유산 함께 지켜주세요!

기증·기탁문의 자료교육부  
전화 : 062-603-9630 (9633)

한국학호남진흥원

우)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소촌동)  
전화 : 062-603-9600 | 팩스 : 062-941-6705 | E-mail : help@hiks.or.kr

## 전통과 미래를 잇는 플랫폼 구축

### 함께! 같이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 지역사회와 지역민

### 호남 국학 집대성

- 연구와 협력체계 구축
- 의미와 가치 발굴



전통과 미래를  
잇는 걸음  
8년 2개월  
호남국학  
집대성  
140권 돌파

### 빛나는 문화유산 발굴!

- 104,555점 수집 보존
- 광주 20,875점

### 공감! 공존!

- 역사문화콘텐츠 발굴 및 제작
- 지역민 향유 및 확산



누리집  
호남학TV